

사66:1-4 하나님의 관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66:2)

1.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2)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시민의 자격을 8가지(소위 팔복이라고 함)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5:3).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토코스'입니다. 이는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잠언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2.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2)

통회를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통회는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깨진 마음,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진 마음입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깨진 틈새로 물이 스며들 듯이 주님의 은혜는 깨진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렇게 깨진 마음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주님은 많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남은 한해 통회의 눈물을 많이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젖은 눈으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3.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이다.(2)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창19:14)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떨림은 커녕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